회사 도산해도 임금·퇴직금 돌려받을 수 있다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회사는 도산절차(회생, 파산)를 검토하게 된다. 도산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도산절차를 신청한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회사의 재산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 더 적다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제1호, 제2호)에는 법원이 공익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 자체가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 등 참조).

한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때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지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미지급 임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체당금 지급 이후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한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에 참여해 이를 변제받게 된다. 도산절차에 들어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따라서 사업주로서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되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속히 도산절차를 신청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동요가 커지고 퇴사자가 속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바, 원칙적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부터 전문가와 도산절차를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체당금지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대응이 되기도 하므로,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바른

순이삼촌이 쓰러진 제주에 걸린 왜곡 현수막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현기영은 소설 '순이삼촌(1978년 작)'으로 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린 소설가다. 4·3 사건으로 군경에 의해 남편과 쌍둥이 자식을 잃은 순이삼촌(제주도에선 먼 친척을 남녀 구분 없이 삼촌으로 부르는 풍습이 있다)의 생애를 조명하며 4·3의 비극을 알렸다.

순이삼촌은 4·3 이후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평생 일군 제주의 옴팡밭에서 음독해 목숨을 잃는다. 현기영 소설가는 이 소설의 발표 이후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가 3일간 고문을 받는다. 기록도 발설도 금기시되던 4·3 사건은 사건 발생 약 40년이 지난 1989년 민주화 이후 첫 공식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2000년에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2003년엔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대표해 4·3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지정 추념일로 정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이 걸려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극우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있다.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고위원 선거를 앞뒀던 태영호 의원은 해당 언동으로 정치권·시민사회에 질타를 받으며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미군정의 친일 관료·경찰 등용,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 및 총파업 돌입, 서북청년단의 입도와 도민을 향한 테러행위, 제주도 전역을 향한 토벌대와 무장대의 양민 학살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제주의 맥락을 제거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주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 하고 '상생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 이를 돕지 못할 망정, 무의미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가호호 근심과 가난이 없어지면 좋겠다. **48년생** 사랑이 평생 없는 것도 자신 탓. **60년생** 문화센터에 가서 한문 쓰는 공부를 해본다. **7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84년생** 내일이 오늘보다 발전되도록 공부해야.

37년생 과거의 사랑이 아름답다 해도 이미 지나간 일. **49년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이 저승보다 비할 바 없다. **61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재혼에 도전. **73년생**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 **85년생**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준비를.

38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50년생**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 신중히. **62년생** 약간의 먹구름 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74년생** 장기투자는 신중히 고려. **86년생** 직장 다니면서도 교육투자는 계속.

39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51년생** 자식에게 주기보다는 주택연금을 생각해보자. **63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75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87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40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2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64년생** 투자에는 어느 분야든 인내가 따라야 할 것. **76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88년생** 지나간 인연에 연연한다고 다시 돌아오겠는가.

41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5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7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 **89년생** 저축한 돈으로 차보다는 집살 것을 계획하는 것이.

42년생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5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66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 나간다. **78년생** 꿈을 이룰 계기가 온다. **90년생** 무겁게 잠긴 성문도 작은 열쇄하나면 쉽게 열리니 문제해결책은 있다.

43년생 이사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5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67년생** 투자에서 묘수를 찾지 말고 인내심으로 향방을. **79년생** 가뭄에 비 오듯이 순식간에 해결. **91년생** 버틸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44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56년생** 남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자녀에게 소통시키도록. **68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8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92년생**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해보자.

45년생 당신의 발등을 찍는 것은 당신의 도끼. **5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69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81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야. **93년생** 어디를 가든 대립관계를 만들지 말고 실리적으로 중재를.

46년생 매매수가 있으니 오후에 이루어진다. **58년생** 금리가 높으니 생활비가 적어지는데 단기투자를 해볼까. **70년생**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82년생** 거래를 잘 살펴야 한다. **94년생**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47년생 자식이 노후의 보험이 될 수가 없을 것인데. **59년생** 중도포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 **71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8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으니 마음을 접어라. **95년생** 친구 개업 집에 즐겁게 갈 일이.

김상회의 四季

무조신

무속巫俗을 표현한다면 무부巫夫 및 무녀巫女의 풍속을 말한다. 신계누설神界漏洩에 실린 신령스런 내용을 적어본다. 무속관련 전설 설화 신화 사실에 근거한 얘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무조를 여성으로 삼고 있으며 신분身分이 고귀高貴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류해보면 성모전설;지리산의 성모천왕聖母天王을 무조로 한다. 왕녀전설;중국의 제녀帝女 또는 조선의 왕녀王女를 무조로 한다. 귀녀전설;귀족의 여성을 무조로 한다. 왕무전설;무녀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무사巫事를 시작始作했다고 하는 전설이다.

이렇게 네 종류로 전해지는데 성모천왕聖母天王은 저자 불명의 무녀속고巫女俗考라 칭하는 사본에 "신라중엽 함양의 법우화상에게 딸 여덟명이 있었는데 각기 여덟 지역으로 파견되어 무업巫業을 행했다…중략" 지리산 고엄천사에 법우화상이 어느 날 문득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바라보니 비가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있다. 그 흘러온 물줄기를 찾아 천왕봉 고대기에 이르니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성모천왕聖母天王이라 이르고(고려시대 박전朴全의 용암사중수기龍巖寺重修己에서 성모천왕은 곧 지리산신이니…) 인간 세상에 귀양을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대와 인연이 있으므로 수술水術을 적용하여 스스로 중매中媒했다고 했다. 마침내 부부가 되어 살면서 딸 여덟을 낳았고 자손이 많이 퍼졌다. 모두 무술巫述을 가르쳤는데 금방울과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미타불을 외우고 무업을 행했다. 이 때문에 세속에서는 큰무당은 반드시 지리산에 가서 성모천왕에게 기도해서 접신한다고 한다. 성모천왕은 곧 지리산신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조선시대의 제자들도 신의 여신女神에 대한 신앙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출제: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4			7			6	1
1	2		6				4	8
							1	
9				5				4
	3							
5	7				3		9	6
6	8			2			5	7

		8				5		
	4		8				2	
2					7			8
		6					7	
				5				
	7					3		
6			5					3
	8				6		1	
		7				4		

정답

4	9	3	7	6	5	1	8	2
5	7	2	1	8	3	4	9	6
6	8	1	9	2	4	3	5	7
8	5	7	4	9	2	6	1	3
9	1	6	3	5	7	8	2	4
2	3	4	8	1	6	5	7	9
7	6	8	2	4	1	9	3	5
1	2	5	6	3	9	7	4	8
3	4	9	5	7	8	2	6	1

6	1	9	5	4	2	7	8	3
4	8	5	3	7	6	9	1	2
3	2	7	1	8	9	4	5	6
5	7	2	6	1	8	3	9	4
8	9	4	7	5	3	2	6	1
1	3	6	2	9	4	8	7	5
2	5	3	9	6	7	1	4	8
7	4	1	8	3	5	6	2	9
9	6	8	4	2	1	5	3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